

한국인이 세계 最古의 예술품을 만들었다

글_이중호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인간에게 소유 욕구가 자리 잡자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를 장식하거나 갖고 다니는 장식품들이 생겨났고,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표현하겠다는 욕구가 생기자 예술, 즉 그림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겼다. 전자는 작은 조각품이나 생활용구로, 후자는 바위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두 분야 모두 세계적인 유산을 갖고 있다. 후기구석기시대의 홍수아이가 발견된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두루봉 동굴 출토 뺏조각 인물상. 20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사슴뼈에 새긴 이 조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물 조각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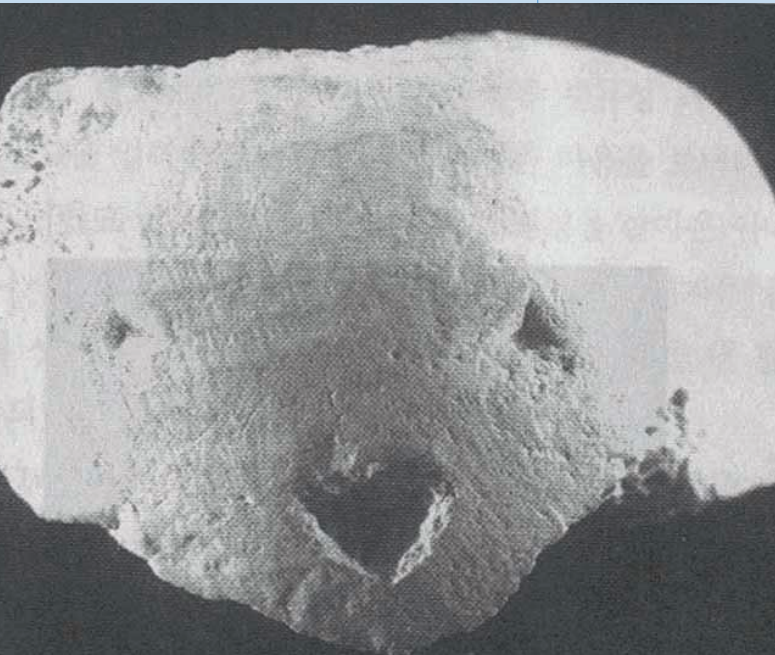
현리 두루봉의 또 다른 동굴인 제2동굴에서 출토된 소형 인물상과 울산 대곡리 반구대 바위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놀랍게도 두루봉에서 발견된 소형인물상은 무려 20만 년 전에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연대가 높다. 또한 반구대 바위그림은 단일 바위그림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수많은 동물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고대인들의 교과서라는 말도 있다(「바위그림, 과학과 기술, 2002년 12월호 참조).

두루봉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뺏조각 인물상’

홍수아이가 발견된 장소 인근인 제2동굴에서 발견된 인물상은 사슴 윈다리 위쪽 뼈를 쪼아 조각한 것으로 높이 27mm, 가로 41mm, 무게 49.8g에 불과하다. 비록 코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눈과 입은 뚜렷이 표현되었고 귀도 어느 정도 형상화했다. 두루봉 뺏조각 인물상은 한마디로 귀여운 모습인데 누가 보더라도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얼굴 전체를 둥글게 만들려고 했던 듯하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관절부분을 다듬어 평행을 이루게 했다. 왼쪽 모서리를 떼어내려고 쪼았던 흔적이 분의 아니게 귀가 되어 버렸다. 눈과 입은 뾰족한 새끼개(burin)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른쪽 눈은 두번, 왼쪽 눈은 한번을 쪼았다. 입만큼은 다섯번 정도를 쪼아서 벌린 입을 만들어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볼록한 면을 얼굴이 되도록 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아래턱은 약간 길쭉하게 표현했는데 폼에 넣고 다녔던 예술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인물조각상이 출토된 두루봉 동굴 역시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이용조 교수팀이 지난 1976~7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했다. 불을 피우던 화덕자리와 숯, 열매를 깨는데 썼던 돌망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자르는데 사용하였을 굽개와 자르개 등의 석기도 발견되었다.

이 동굴에서는 젓소·쌍코뿔소·큰원숭이·사슴 등의 뼈도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고온지역에서 사는 동물로 이 지역이 과거에는 아열대기후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잡힌 사슴의 이빨을 분석한 결과 사슴사냥은 9~10월에 성행했으며 이 동굴에는 다섯 식구가 2천700일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석기나 신석기인들도 장식품을 패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대상으로 자신과 닮은 것, 즉 인간 형태도 선호하는 물품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추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스트리아의 인류고고학자 요하네스 마링거는 가족일원의 머리뼈 즉 조상의 머리뼈를 빌려 수호신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인물상을 인간이 만든 작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그린 가장 오래된 예술작품이 7만 년 전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290km 떨어진 블롬보스 동굴에서 발견된 추상화가 그 주인공이다. 이 추상화는 철광석의 일종인 '오커(ocher)'의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균등한 간격으로 대각선 여러 개를 긋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대각선을 그어 마름모꼴과 삼각형을 표현했다. 학자들은 이 작품을 증거로 인류가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해왔다.



▲ 뉴허랑의 여신상. 중국 요령성 능원현과 건평현에 우허량 신석기유적에서 나온 여신상으로 코허리를 빼고는 근대 한국인의 얼굴과 유사하다.

◀ 호모에렉투스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각. 15만~20만 년 전에 생존했던 원시인류 '호모에렉투스'가 조각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자연 풍화현상에 의해 우연히 사람 얼굴 모양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2001년 이탈리아 북서부 보르조나스카 지방에서 고고학자 피에트로 가이토 박사가 발견한 사람 얼굴 형상의 암석이 15만~20만 년 전 생존했던 원시인류 '호모에렉투스'가 조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연 풍화현상으로 우연히 사람 얼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 암석의 한쪽은 턱수염이 있는 얼굴, 반대쪽은 턱수염이 없는 얼굴로 깎아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조각상을 본 많은 고고학자들은 원시 인류가 예술에 필요한 기호나 상징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질학적 변형에 의해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설사 인간의 작품이라



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두루봉 조각상보다 다소 늦은 연대이다.

한편 프랑스 북서부 코자르니카 동굴에서 보르도대학 장 뤽 구아텔리 박사팀이 발굴한 기호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뼈도 있다. 양이나 소의 뼈로 길이 8cm에 나란한 선 모양의 홈이 깊게 패어 있는데, 추정 연도가 무려 140만 년 전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작품이라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두루봉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조각상이야말로 인류사에서 큰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국민들조차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루봉의 인물 조각상을 제외하고 이후

▲ 볼롬보스에서 발견된 7만 년 전 추상화

▼ 140만 년 전 기호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뼈. 프랑스 북서부 코자르니카 동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양이나 소의 뼈로 길이 8cm에 나란한 선 모양의 홈이 깊게 패어 있다.

의 유적지에서 고인과 신인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조각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고조선 근거지 중국 뉴허량에서도 여신상 발견

두루봉 조각상 다음으로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물 중에서 발견된 여신상을 꼽을 수 있다. 따링허(大凌河)가 지나는 능원현과 건평현에 걸쳐있는 뉴허량(牛河梁) 유적으로 이 지역은 고조선의 근거지라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서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이다.

기원전 3500년 전으로 밝혀진 홍산문화 유적에서 여신묘(女神墓)와 적석총, 제단 유적과 함께 여신상이 발굴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웨이 교수는 홍산문화의 유적에 대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의해 문화 발전이 낙후된 곳이라고 여겨졌던 중국 동북 지역의 서부에서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발달한 문화가 꽃피었다는 것에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이로써 선사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와 발전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방의 비너스라고도 불린 여신상은 여신묘에서 발견되었는데 흙을 빚어서 사람 크기로 만들어 구운 소조등신상(塑造等身像)이다. 여신상 얼굴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우측 귀와 코허리가 약간 훼손되었으나 얼굴 윤곽을 알아보기에는 별지장이 없다. 두상의 길이는 22.5cm, 얼굴 너비는 23.5cm로 실제 사람 크기만 하다.

얼굴은 선홍색을 띠고 입술은 붉게 채색되어 있으며 머리 뒤쪽 부분은 평평하여 벽에 걸어 놓기에 좋은 형태이다. 등글넓적한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꼬리는 위로 올라가 있으며 눈썹은 선명하지 않고 콧대는 낮고 짧으며, 코끝과 콧방울은 둥그스름하다. 입술은 비교적 큰 편이고 윗입술은 얇으며 입가는 둥글고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가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아래턱은 둥글면서 뾰족하다. 눈은 제법 크게 만들었고 옥구슬을 눈동자로 박았다.

왕웨이는 여신상의 얼굴 생김새는 뚜렷하게 몽골 인종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황규호는 빈약한 코허리를 빼면 우리들과 비슷한 얼굴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T**

